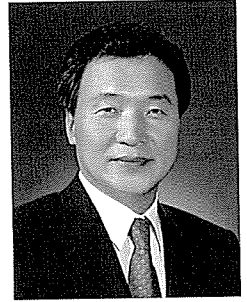


이 세상 누구나 살아가는 데 가장 소중한 것



손학규 경기도지사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 웰빙(well-being)이 생활문화의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의미를 소비나 미용에 대한 집착으로 왜곡하기도 하지만, 사실 웰빙의 참뜻은 말 그대로 “건강한 인생”을 살자는 데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무척이나 바람직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며 달려왔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룩하기도 하였지만, 이제는 건강을 비롯하여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가치들에 대해서도 눈을 돌려야만 할 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한 국가의 수준 높은 경제와 복지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주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정부가 앞장서 돌봄으로써, 국력을 배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민의 행복과 직결된 건강지수를 높여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용의 낭비를 막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선진적인 보건·복지 정책의 수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체감하는 보건복지”를 목표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출생에서 사망까지 전 주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평생 건강 관리체계의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와 선천성 이상아·미숙아 의료비 지원으로 영·유아기의 건강한 출생과 성장을 돕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건강습관을 길러주는 다양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아 백혈병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는 어린이의 치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는 한편, '암 조기검진'과 '암 확진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 계층을 위해서는 치매·요양시설 확충과 방문 보건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주민건강의 또 다른 핵심요소인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생활체육 시설의 리모델링과 체육공원 조성, 동네체육 시설 확충 사업이 완료되면, 경기도는 생활스포츠의 선진지역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개인의 건강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시스템의 선진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들 스스로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진정으로 well-being하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